

도시환경과 건축문화 (3)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21세기를 대비한 한국도시의 발전방향

黃鏞周/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oo

2.4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건축가

도시에 대한 건축가들의 역할과 건축가의 본격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중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도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계몽주의시대를 지나 산업혁명시기 이후로 보는 것이 좋겠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되고 있을 즈음에 근대건축국제회의(CIAM)⁸⁾의 선언과 활동은 당시로서는 도시건축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1925년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이 활동은 당시의 스템화되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와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은 인간성, 지역성 등을 상실케하고 획일적인 개발로 도시의 성격과 구조를 파괴시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 후 1962년경 결성된 팀텐(Team 10)¹⁰⁾의 활동과 선언은 파괴되어 가는 도시조직을 회복시켜보려는 젊은 건축가들의 시도로 그 결성의의를 찾아 볼수 있다. 꼬르뷔제(Le Corbusier)는 빛나는 도시(Radiant City, 1930)를 제안하였으며, 옹거스(O.M Ungers)는 '새로운 건축에 관하여'를 통하여 기능주의 건물에 대한 비판과 도시공간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도시에 대한 선언과 비전을 제시한 솔레리(Paolo Soleri), 아키그램(Archigram)등의 건축가 또는 건축가그룹은 미래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견하였고, 독시아디스(C.A Doxiadis)의 에키스틱스(Ekistics)¹¹⁾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구조물 등의 성격과 관계를 규명하고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를 통하여 도시의 구성요소를 언어로서 분석하고 재조합하여 도시에 적용하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¹²⁾ 크리에(Rob Krier)는 도시조직을 통하여 재발견하고, 파괴된 도시공간(urban space)을 지역 특성에 맞게 회복시키고 창출해 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¹³⁾

이렇듯 도시를 진단하고 해석하며 도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도시건축에 대한 제안과 선언과 처방을 시도한 많은 건축가들의 노력은 근대건축운동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건축가들의 제안과 시도가 기존의 도시 성격과 조직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비인간적인 환경을 만들거나, 활력이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많이 있다. 니마이어(Oscar Niemeyer)가 설계한 브라질리아 신도시계획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많은 실패사례에 위축되어 우리 건축가들은 이제 도시에 대한 제안과 선언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러한 실패를 우리 마저 답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난립상태의 도시를 우리의 영역이 아니

8) Congre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 근대건축운동으로 Walter Gropius, Le Corbusier, S.Giedion, M.Breuer 등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한 근대 건축국제회의의 (1925-1956)

9)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703쪽

10) 1962, CIAM에서 활동하던 젊은건축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됨

11) 인간의 정주공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Ekistics의 그리스어는 Oikos로서 'setting down'(인간정주)의 의미를 지님.

12) Christopher Alexander, The Timeless Way of Building(Vol. 1), A Pattern Language(Vol. 2), The Oregon Experiment(Vol. 3)

13) Rob Krier, Urban Space

라고 내 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을까? 이미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를 생각하고 해석한 것과 같이 보다 영역을 넓혀서 도시를 건축과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서 해석하여 도시성을 회복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농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도시로 몰려들어 삼시간에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을 일으키게 된 지난 3~40년간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았다. 토지와 함께 삶을 꾸려온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은 이제 도시에서 오갈데 없는 미아가 되어 떠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하여 서구의 도시문화가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아무런 여과없이 밀려드는 가운데 우리의 도시는 크게 다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농촌인구가 몰려들면서 도시는 폭발하듯 확장되고 엄청난 양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터도, 쉬는곳도 늘어나고 부정적인 도시시설도 생겨났다. 혼잡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쾌락을 부추리는 다른 매력도 도시에는 가득차게 되었다.

세계의 도시인들이 뉴욕을 선호하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교통, 공해, 소음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의 불쾌함때문에 도시에 사는 일이 힘들다고는 하여도 도시는 도시대로의 분위기와 문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더구나 후기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는 일터와 집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의 발산지로서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도시의 속성을 이해하고, 도시적 삶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건축가의 몫이다. '하나의 건물은 작은 도시이며 하나의 도시는 커다란 건물이다.' 라고 말한 알도 반 아이크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건물이 모여 결국 도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에 엄청난 양의 건축물이 세워졌을 뿐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 도시의 환경개선은 건축가가 선도하여 나가야 할 영역이다. 더이상 경제행위의 수단으로서의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문화와 호흡하는 생명력 있는 건축을 세워야 한다.

80년대 우리는 올림픽을 통하여 바람직한 도시환경정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잔치를 통하여 우리의 고유한 문화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도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문화의 중심으로 재 창조 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배양된다.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 실패한 경험을 살리고 우리의 도시적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 분야는 디자인 산업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가, 도시설계디자이너, 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5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지난 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일본은 전세계의 제

일선에서 활약하는 이른바 '스타' 건축가들의 설계 경연장이 되고 있다. 거품경제의 영향탕도 있지만 특히 상업건축과 업무시설의 설계에 수많은 외국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앞다투어 진출하였고, 일본은 일본대로 이들의 진출을 다가올 국제개방을 대비하여 충격을 줄이는 완충적인 과정으로 삼았다. 오사카 칸사이(關西)공항을 맡은 피아노(R.Piano), 센츨리빌딩의 포스터(N.Foster)를 비롯하여 로시(A.Rossi), 벨리니(M.Bellini) 등의 유럽건축가, 그레이브스(M.Graves), 홀(S.Holl), 게리(F.Gehry) 등의 미국 건축가들 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참가하여 도시의 이곳 저곳에 그들의 문화를 심어놓고 있다. 물론 대규모의 공업 단지나 토목시설의 기술적인 분야에는 전문엔지니어링 회사가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도시건축은 명성을 얻고 있는 건축가들의 영역이다.

진출하는 것은 외국의 건축가 뿐 아니라 단게(丹下健三)나 쿠로카와(黒川紀章), 이소자키(磯崎新), 마키(槇文彦)와 안도(安藤忠雄)와 같은 일본의 대표건축가들도 일본 정부와 현지 문화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프랑스, 독일 등지의 문화시설에 일본의 디자인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도 21세기의 세계 건축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 사상이거나 일방적인 저자세가 아닌 상태에서 외국건축가와 활발한 교류와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건축사상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리딩건축가 집단을 형성하는데 관, 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기술일변도 이거나 물량을 동원하는 '건설' 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문화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설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3. 사회와 건축

건축에 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 용도, 기능, 효율성과 함께 인간을 둘러싸는 문화, 사회, 역사의 영역의 문제를 빼고서는 정의가 불가능하다. 건축에는 인간의 문제와 문화적 요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건축이란 인간의 여러가지 생활과 활동은 물론 생존을 위한 환경으로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건축가는 건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정신적 환경까지 광범하게 다루게 된다. 건축가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바로 이 두가지 환경 요소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기후와 풍토, 땅과 재산, 재료와 기술의 문제에서 문화적 가치관, 장소적 의미, 경관문제까지 다루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건축가의 미래는 감당하기에 벅차다.

3.1 전문업으로서의 건축행위

가. 전문화의 과정

역사상에 기록된 최초의 건축가는 과연 누구일까? 기독교적 세계사를 통해 보면 에덴 동산을 하느님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최초의 조경가이고 토목기술자이지만 건축가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건축물이 없어도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을 낳았고 맏아들인 카인이 농사꾼이었으니 어찌면 그가 최초의 건축가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건축물다운 최초의 건축물은 벽돌과 역청으로 쌓은 바벨탑이었을 것이니 이때 무리를 지도하여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건축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이야기는 객적은 소리가 아니라, 원시시대에는 인간이 자연환경을 변경하여 인공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건축, 토목, 조경 등이 미분화된 상태로 진행되었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넓은 뜻의 건축가, 즉 공인들의 우두머리인 architect이었다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대에 오면서 건축가의 역할은 점차 전문화되면서 건축행위 자체가 전문업으로서 자리잡게 되어 위상이 확고해진 반면에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세분화되고 각각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건축가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어 버린 감이 없지않다. 또 건축물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각 유형별로도 전문화되고 있어 건축가 자신들이 건축가라는 직업의 위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나. 직업과 전문업

일반적으로 전문업(profession)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직업(occupation 또는 vocation)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선언된(prefessed)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직업”에만 해당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직업은 선사시대부터 진행되어 온 노동의 분화에서 발생했지만, 전문업은 근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문업은 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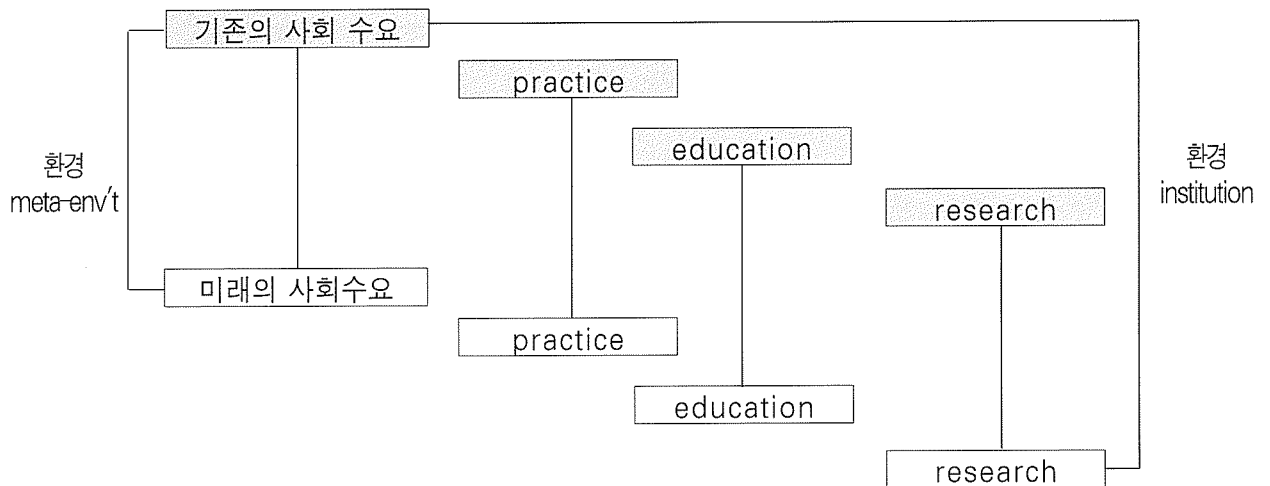
변동에 따라 그리고 전문업 내부의 요구에 따라 점차 분화되어, 현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은 직업이 전문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문업의 장래를 사회적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벨(Daniel Bell)의 예측처럼 “탈공업화 사회에서 뛰어난 직업집단”으로 부각, 성장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수요가 재화의 생산보다는 인간에 의한 서비스 전달로 점차 질적, 양적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업 내부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종족보존’ 및 ‘증식’의 본성과, 사회적 수요와 대사회봉사에 대한 높은 ‘할인율’ 때문에 점차 특화,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메이휴(Lewis B. Mayhew)와 포드(Patrick J. Ford)의 주장을 빌어 보면, 어떤 평범한 직업이 하나의 전문업으로 정착, 진화하자면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 사회적 수요(social needs): 먼저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충분하여야 하고,
- 개별성(uniqueness): 이 수요에 대응하여, 일단의 직업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직업과 뚜렷이 구별될 뿐 아니라,
- 우월한 능력의 선언(competence & profession): 다른 직업의 전문가보다 더 잘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적 공인(social acceptance): 그러나 이 선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 체계적 지식(systematized body of knowledge): 전문업은 이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 제도(standard procedure): 아울러 실무 수행에 있어 공인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 직업윤리(ethical principle): 사회적 안정에 대응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기준이 있어야 한다.
- 집단(group): 그 뿐 아니라, 개개 전문가가 전문가



[그림 3-1] 전문업의 발생과 발달과정

로서의 사명감과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업의 발생과 발달 과정이 이러하다면 한국의 건축계가 전문업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과제는 어떠한지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3.2 건축을 만드는 사람들

건축물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가? 건축가인가, 시공자인가? 건축가는 자기의 창조적 행위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그 주역으로 생각한다. 공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생산품을 만드는 입장에서서 자기가 그 직업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건축주는 어떤가? 아마도 그는 설계와 건설행위를 자기의 의지와 자본을 동원하여 구체화하는 수단이라고 여길 것이다. 또 건축이나 동시행정을 다루는 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하나의 건축행위는 이미 정해진 도시의 전체상(像)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간주할 것이고, 계획적인 경제운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행위란 사회자본의 조달과 고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건축은 문화적, 공학(工學)적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존재이다. 건축을 만드는 것은 그 사회인 것이다.¹⁴⁾

1992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건축생산고는 134조원으로 이는 국가 전예산의 12.7%에 해당한다. 건축업계의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수 있다. 이와같이 전 국토에 걸쳐 엄청난 물량과 인원을 동원하여 이루어내는 일을 건축생산이라고 할 때 그 주체는 건물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기획,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자',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에 나타난 것을 실제의 건축물로 실현하는 '공사업자'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물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관청이 개입하고, 설계자와 협동하는 전문컨설턴트로 영역이 나누어진다. 공사업자도 '전문공사업자'와 '기자재업자'로 세분된다.

가. 발주자(건축주)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관청, 단체, 기업 혹은 개인으로서 건축주¹⁵⁾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와 자원(재정, 토지, 사람)을 제공하고, 설계자의 조언에 따라 적당한 공사업자를 선정하며, 설계자와 공사업자가 제안된 여러 문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며, 대체로 건설후의 건물유지관리까지 수행 한다.

나. 설계자(건축가와 컨설턴트)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건물의 기능과 성능에 알맞도록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설계의도를 공사업자(도급업자)에게 전달한다.

공사중에 설계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건물이 설계도서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설계자는 발주자와 공사업자 사이에서 양자의 계약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실행되는 지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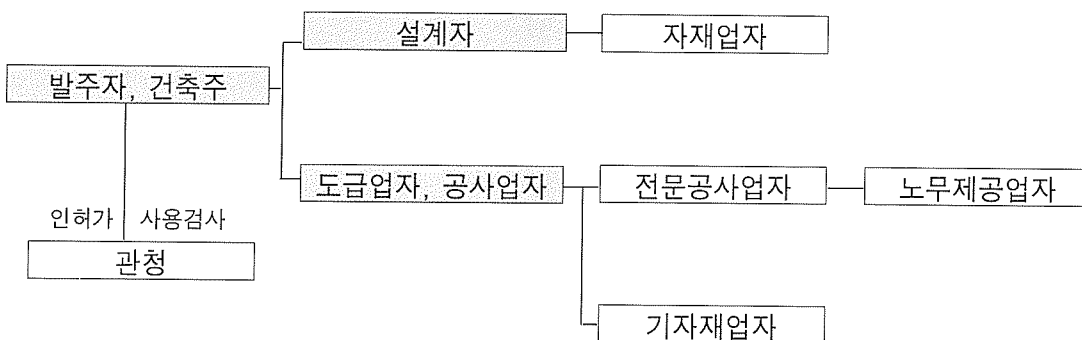
설계자의 협력자로서 전문 컨설턴트(consultant)로서는 조경자, 구조전문가, 기계와 전기설비전문가 조직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화가,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들이 참가하기도 한다. 실내디자인, 실내장식을 위하여 디자이너와 협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색채나 조명, 음향 디자이너까지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분화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 공사업자

건축물 공사는 보통 단일의 도급업자가 맡게 되지만 다수의 하도급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그림 3-2). 단순한 공종으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 공사는 여러 직종으로 나누어지고 직종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설계와 공사 두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는 디자인-빌더(design/builder)¹⁶⁾ 시스템에서는 주로 공장이라던지 로 코스트 주택(low-cost house)의 건설에서 두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경우로 일본의 종합공사업자(general contractor)¹⁷⁾도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수행하기도 하지만,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림 3-2] 건축 생산업계의 구성

14) 林昌二, 建築概論, 앞의 책 69쪽

15) 설계업무, 가구, 기구를 포함한 공사계약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owner라 칭함(AIA Architect's Handbook). 그러나 영국에서는 client라고 부른다(RIBA Handbook)

3.3 건축가의 영역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기도 힘들고,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기란 더 더욱 어렵다. 그저 도시계획적 제한 사항을 겨우 만족하고 건축주와 개발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용적이나 맞추는데 그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이념을 펼치는 건축가의 모습은 전혀 요원하다.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직시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협동하여 새로운 도시비전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경제논리에 급급하여 지내온 지난 몇 십년 동안,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땅 투기로 부유해진 건축주, 정치와 결탁한 개발사업자, 대기업 등의 새로운 발주자에게 봉사하면서 건축가들이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최근 국제 개방을 빌미로 대형 건설회사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꺼번에 수행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일부 건축가들이 스스로 사회적 지도자임을 포기하고 건설회사나 대기업의 하청설계업자로 협력하면서 얻은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건축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축가의 영역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건축생산체제가 양산(massproduction)과 프리페브(prefabrication)경향을 띠면서 상대적으로 건축가의 손을 빌리는 부분이 줄어 들고, 반면에 일반적인 설계과정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조기술이나 설비기술자와 같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새시나 커튼월 처럼 전문 분야가 아니면 아예 그럴 수도 없는 경우도 흔하게 되었다. 분업화에 따라 건축가의 역할이 점차 기술자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건축가의 역할이 줄어 든 것이다.

그러나 건축 프로젝트 자체가 복잡 다양해지고 초대형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 영역의 기술자와 컨설턴트들이 실제 업무에 참가되므로 선진국에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건축가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 십년씩 단일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도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 소비자사회, 탈공업사회에서는 그 수명(life cycle)이 짧아지고,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와 개발방식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거시설과 쇼핑센터, 병원이 하나의 콤플렉스에 사용되는 단지규모의 사업에서는 도시와 건축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개체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한블럭을 개조하거나 개발하는 단위의 프로젝트로서 도시설계적(urban design) 접근방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오히려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디자이너, 설비계획전문가 뿐 아니라 음향, 조명, 그래픽 등 각종의 전문직이 모여 팀을 이루고 건축가의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

4. 건축과 기술-시스템으로서의 건축

유럽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이전 까지만 해도 건축가는 본질적으로 예술가라고 일반에게 여겨졌다. 그리고 건축가들의 설계대상도 중요한 건축물이거나 기념비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날 건축가들은 예술적 활동보다는 기술, 과학을 도입하여 스스로 설비, 구조, 재료, 공법의 상당한 부분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술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profession)으로서 설계, 공사에 대한 건축주의 조언자(adviser)의 역할까지도 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건축의 실무는 과거처럼 예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나 기술도, 혹은 사업만도 아니다. 건축가는 단순한 건설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의 역할도 맡아야 하며, 건축가는 전문적 기술 지식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학과 역사까지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축가는 건축설계, 구조설계, 설비설계, 감리 그리고 조직의 운영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지도성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직능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 건축조직을 운영하는 건축가 자신이 모든 영역을 다 소화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조직의 운영만을 책임지게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건축가로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건축가 자신이 디자이너라면 모든 디자인의 기본방침부터 직접 결정을 내리게 되고, 구조에 밝다면 구조시스템을 우선하는 설계쪽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건물시스템 설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건축가나 담당 디자이너가 구조나 설비부분에 능통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건축설계라는 작업은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적인 재능을 전제로 한다. 대규모 설계조직에서는 팀워크로 업무가 실행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지만 건축설계의 본질은 개인적 서비스이다. 그것은 의사, 변호사의 업무와 자주 비교된다. 그러나 설계자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일단 건물이 세워지면 사회성을 갖게 되는 점이 의사, 변호사업무와 크게 다른 점이다. 충분한 경제적 기반위에서 조직의 중심이 되는 건축가가 사회적 시야를 갖고 건축의 기술적-예술적인 면에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면 훌륭한 건축 설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4.1 다양한 사회의 요구

탈공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정보화사회의 다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건설생산의 과정에서 건축가는 사회의 다양하고 급변하는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광범위한 주변 관련사업과 복합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하나 하나의 건축의 차원이 아니라 도시시

16) 디자인-빌더, 7항 <건축가의 서비스>참조

17)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여러 직종의 전문공사업자(sub contractor)를 참가시켜 시공조직을 편성하고 현장을 총괄, 관리하며 건물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설로서 생산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건축생산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건축가를 비롯한 설계조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설계(design)와 공사(constuction)를 연결하는 기술(engineering)조직이 부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기술개발이나 경험축적보다는 모든 논리를 경제에 우선하는 건설 조직의 편향도 큰 장애요인이 되어, 날로 높아가는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미처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가가 실무를 쌓을 수 있는 곳은 소규모의 일반 설계조직, 대,중형설계조직과 관공서이다. 그리고 사무소의 운영자는 개인 혹은 공동 경영자(파트너)로서 설계직원을 채용하게 되며 조직의 규모나 프로젝트에 따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70년대말 정도까지만 해도 선생(건축가)과 제자와의 관계로 유지되던 소규모 아뜨리에형 사무소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고용, 피고용관계의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노동문제가 노출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사무실을 포함한 일반설계조직에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따른다.

공사현장 역시 기술개발과 경험축적에 의하기 보다는 단순한 노동력 동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안이한 자세와, 기술적인 문제를 책임전가하려는 태도 때문에 바람직한 공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마땅히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조정하며 방법을 찾아야 할 건설당국(관청)도 설계-현장간을 상호견제하며 방관자적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건축가의 직능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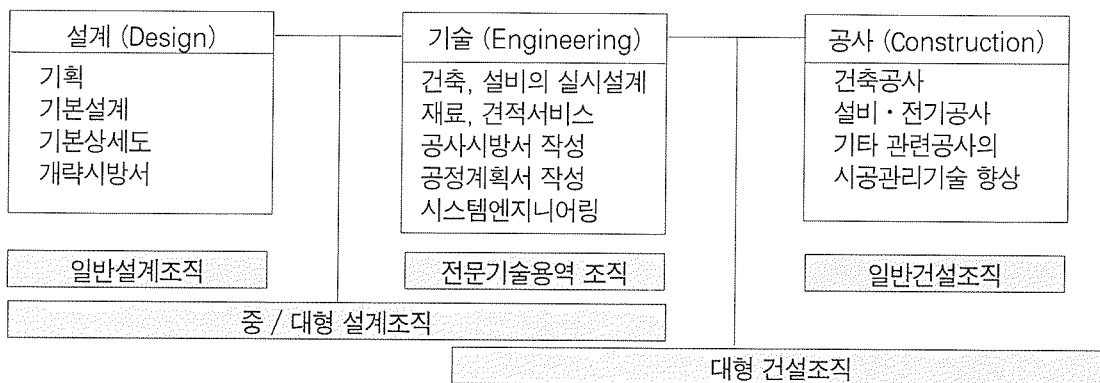
4.2 설계-시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프로젝트의 성격과 건축주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가의 손에서 구상된 설계는 여러 전문기술조직의 협력에 의해 공사에 필요한 정보로 완성되어 공사도서로 꾸며지게 된다. 물론 이 공사도서에는 설계도, 시방서 뿐 아니라 소요자재의 수량과 수급계획, 단계별 공정과 공사비 예산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설계가 자금과 공사를 통하여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수준의 전문기술용역 조직의 영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의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설계와 기술의 영역을 합친 기능의 중,대형설계 조직과 기술과 공사의 기능을 갖춘 대형건설조직의 육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살리는 건축조직은 사용자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이 완벽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건축, 구조, 설비, 재료, 건적, 시방서, 공사관리 등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기술(engineering)팀을 조직하려면 각 부문별로 시스템엔지니어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직은 때때로 일반설계조직의 계획안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며 협동하기도 하고, 일반 건설조직과 연계하여 기술-공사업무를 일괄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텔같은 외국조직은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러한 기술조직을 주체로 조직되어 있다. 전문가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또는 사회발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트릭스의 결합으로 부문간 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설계와 시공, 양 영역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 설계 - 기술 - 공사의 조직과 영역